

명동의 지도

황 인(테크놀로지 아티스트)

요즘이야 홍대앞도 있고 압구정도 있어서 댄디한 젊은이들이 자기 취향대로 이쪽 저쪽으로 모인다고 하지만 내가 학생시절 때에는 거의 명동 밖에 없었다. 동숭동 학림다방의 커피가 한잔에 백원할 때 명동의 클래식 음악다방 ‘꿈과 같이’에서 사이폰커피를 시키면 오백원이 되었다. 설령탕 두 그릇 값이었다. 상당한 무리였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할 수가 없었다. 호감이 가는 여학생을 앞에 앉혀놓곤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게다. 알콜 램프불을 옆으로 치우면 물이 빨려 올라가며 향긋한 원두커피가 완성된다. 그 호사를 보여주고 싶기도 하였고 커피를 시키면 음악을 신청하는 메모지가 꼭 함께 따라왔다. 그냥 한글로 슈베르트라 해도 될 것을 알파벳으로 쓴다. 겨울 나그네는 당연히 ‘빈터라이제’가 되고 여기에다 ‘구테나흐트’를 조심스럽게 원어로 쓰고 꼭 피셔 디스카우의 몇 년도 판으로 틀어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는다.

당시는 대학생이 클래식 음악을 모르면 아주 야만인으로 취급받던 때여서 일부러 종로1가의 르네상스 음악실까지 가서 캄캄한 홀에서 오렌지 주스를 빨아 마시면서 음악감상이 아닌 음악공부를 할 때였다. 소위 문화인이 되고자 별로 감흥도 일지 않는 클래식 음악을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여 억지로 들을 때이다. 그건 그렇더라도 카페에서 여학생을 만나서까지 그정도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마도 촌놈으로 서울에 올라왔다는 콤플렉스가 그런 외피적인 감각만을 지나치게 발달시켜버린지도 모르겠다. 어쩌다가 제법 경제적 사정이 좋아졌을 때에는 통기타 가수들이 나오던 명동성당 초입의 ‘오라오라’로 가곤 했다. 홍민씨, 이용복씨 등의 가수가 나오고 뽀빠이 이상용씨가 사회를 볼 때다. 임하룡씨는 단역으로 잠깐 나오던 신인 때였고 국산 애플와인 한병에다 안주로 멕시칸 사라다(샐러드)를 시키면 꼭 만원이 되었다. 반달치 하숙비였다. 상당한 지출이었지만 촌놈이 드디어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놀고 있구나 하는 실감을 십분 만끽해 주는 점을 생각하면 아까워할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이 정도 허영심이라도 있었던 덕으로 청바지 문화의 끝물을 잠시나마 맛볼 수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분명 386세대는 아니고 청바지 세대보다는 다소 뒤쳐진 58년 개띠생인 나의 처지로서는 향학열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허영심이기도 한 것이지만, 뭔가 분발심이 일어나면 독일어원서만을 팔던 소피아서점으로 향할 때가 있었다. 사보이호텔 근처였다. 책은 기초적인 독일어조차 더듬거리는 나에게서는 정보라기 보다는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오브제에 가까웠다. 시각이자 촉각의 대상이었다. 동경에서 독문학을 전공했던 주인노인의 황홀한 파이프 담배향은 이런 감각을 부추겨주었다. 독일어원서를 사기에는 항상 경제가 고갈됐다. 그냥 만지작거리다가 나오곤 했다. 물론 사뵈야 내게는 아무런 지적 보탬도 안 되었겠지만 역시 만만한 골목은 청관거리(차이나타운)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근처에는 가게들이 많았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일본잡지들이 매달 어김없이 걸리고 또 미군부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영어원서도 많았다. 책값은 무조건 흥정을 했다. 책값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었다. 주인의 셴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셴이나 껍에 만족했다 싶으면 책을 사들곤 근처의 중국집으로 가서 짜장면에 빼갈을 하나 시킨다. 뜨듯하게 목젓을 타고 흘러내리는 독주는 뭔가를 향한 결의를 북돋게 한다. 방금 산 책을 뜯어서는 파리똥이 새

까맣게 앉은 장개석총통의 사진과 번갈아 보는 묘한 긴장감이 그럴 듯했다. 재수가 좋은 저녁이면 대사관 앞의 중국인 절에서 경극을 볼 수가 있었다. 인간음역의 한계를 도전하는 듯한 극단적인 고음의 가창에다 붉은 색조의 화장이 유난히 돋보이는 배우들의 공연이 이국정서를 자극시켰다. 그 절이 그대로 있어도 좋았을 것을 주창 장 자리로 바꿔놓아도 벌써 二十又數年이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토록 명동에 집착했을까. 그건 아마도 촌놈이 서울을 넘어서서 뭔가를 보고 싶어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때는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우리의 청춘은 마치 먼 섬에 갇힌 듯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국제감각이 집중적으로 유통되던 곳은 역시 명동이었다. 일종의 아시안 인터내셔널리즘이긴 하지만 나의 정신은 여기서 갈 수 없는 넓은 곳을 향해 안테나를 세웠기가 쉬웠을 것이라. 그러저럭 하다보니 나도 30대를 넘겼고 어느 때부터인가 명동으로 향하는 발길이 뜸해졌다.

명동의 상권이 시들어버렸다는 기사가 신문에서 보였다. 아마 80년대 후반 들어서 일게다. 가끔 옛 생각이 나서 사보이 호텔 지하의 카테일바로 가서 잔술을 시켜 마시기도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많이 침체되어 있었다. 강남으로 인파가 옮겨지고 난 명동은 공허해 보였다. 많이 서운했다. 무지에 가까운 청춘이 서울이라는 곳을 그런대로 단기숙성반으로 맛보기하고 세계를 향한 초발심이 시작된 곳인데 그런데 몇 년전부터 명동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유인즉슨 젊은 일본인 여성관광객이 대거 명동을 찾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유야 어쨌든 명동의 활기찬 분위기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비슷한 시기부터 나도 명동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한때는 홍대앞쪽에 열중했지만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명동을 향했다. 물론 학생시절의 랜드마크들은 많이 사라져버렸다. 소피아서점은 충정로 동아일보사 옆으로 갔고 꿈과 같이, 오라오라, 데아트르 추, 필하모니 등은 아예 사라져버렸다. 또 그 공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내 곁에 없다. 대신 나와는 평생 인연이 없을 듯한 큰 가게들이 번듯하게 서 있다.

도시를 찾아가는 지도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다. 평면의 지도 위에 입체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개인의 취향과 버릇이다. 일본인 관광객은 아마도 백화점이나 비빔밥집을 중심으로 명동의 방향을 잡을 것이다. 아시안권 외국어가 재재거리는 똑같은 좌표에서 나는 내대로 사막에서 헛것을 본 사람 마냥 예전처럼 중국인 거리나 명동성당의 고갯마루를 헤매고 있다. 그러다 배짱이 맞는 친구를 만나면 '명동돈가스'로 가서 로스 가스에 청주 한잔을 시키거나 화교소학교 앞에서 물만두에 빼갈 한병을 시키는 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명동의 현실적인 지도를 확인해나간다. 그러면 명동이 여전히 나에게 익숙치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매일 와도 여전히 촌놈의 기분으로 오기 때문일 게다. 이십 년 이상을 왕래했으면 명예주민쯤의 자격은 될 법도 한데 말이다. 그런 명동은 언제나 나를 '길 위에 선 존재'로 일깨워주는 마력을 가졌음에 분명하다. 비가 억수로 오는 날, 깔끔하게 다린 양복이 실컷 젖도록 친구와 함께 명동을 걷고 싶다. 젖어버린 명동의 지도 위에서 어디론지도 모르게 흘러가는 내 인생을 바라다 보고 싶다. 앞으로의 二十又數年은 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쉽 터 광 고

쉽터는 회원의 수필기사를 다루어 기술지 기사를 정독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휴식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한 장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수필을 실었으면 합니다. 많은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